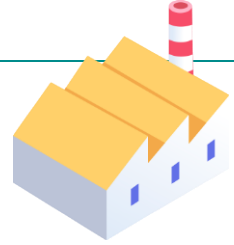


한국도 납기가 우선시된다면

유틸리티 Weekly | 2026.07.16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4.3% 하회했다. 13일 종가 기준 WTI 79.2달러/배럴(WoW +13.8%), 미국 천연가스 2.9달러/mmbtu(-10.8%), 아시아 LNG 현물 16.5달러/mmbtu(+2.9%), 호주산 유연탄 128.7달러/톤(+0.2%), 원/달러 환율 1,498.0원(-2.0%)을 기록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재개되면서 유가는 가격이 다시 급등했고 JKM 원월물도 상승 전환했다. 국제유가의 영향은 3분기 정점 이후 4분기에 완만해질 수 있으나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14일 한국전력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 이후 유틸리티 산업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한다.
- 기후부 장관이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규 원전과 SMR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에 공개된 12차 전기본 수요 전망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을 반영했지만 기존 계획을 초과하는 목표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된 바 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규 원전 최대 4기 가량 및 장기 SMR 도입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16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중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2년 주기로 발표되지만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영향을 반영하여 2027년 17차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건은 발전용 LNG 수요 전망이다. 기존 11차 전기본에서 LNG 발전량 비중은 2023년 26.8%에서 2038년 10.6%로 감소한다. 최근 메가프로젝트 관련 단기 전력 수요 대응에 LNG가 주요 수단으로 부각된다면 탄소중립 경로와 함께 LNG 발전량 비중 목표도 수정될 수 있다. 정책 적합성을 감안하면 발전용 LNG 수요가 상향될 여지가 충분하며 한국가스공사 또는 민간 LNG 직도입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시간이다. 반도체의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되겠지만 최초 증설분의 가동 시점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도 발전설비 및 전력인프라 구축 대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가용 자원에서도 납기가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가스터빈 납기를 고려하면 LNG 발전소 외에도 다른 선택지들이 부각될 수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인 모든 발전 프로젝트에 더해 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 빠른 상업운전이 가능한 수단들이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발전원별 상업운전에 이르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확대된 미국에서도 확인된 수순이다. 태양광, ESS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연료전지의 경우 LNG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목표와 어느 정도로 병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언론에 따르면 RPS 기반 태양광 20년 고정가격계약의 중도 해지 허용 방안이 검토되는 모습이다. 과거 REC 가격이 낮았을 당시 계약했던 많은 사업자들이 PPA 시장으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상승과 RE100 이행 수요에 맞춰 계약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이 아닌 다른 재생에너지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 정부가 정원 및 총인건비를 설정하며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제한된 수준에서 증액이 가능하 때문에 향후 인원 증가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15일 종가 기준 25,500원으로 전주대비 0.8% 상승, YTD 145.2%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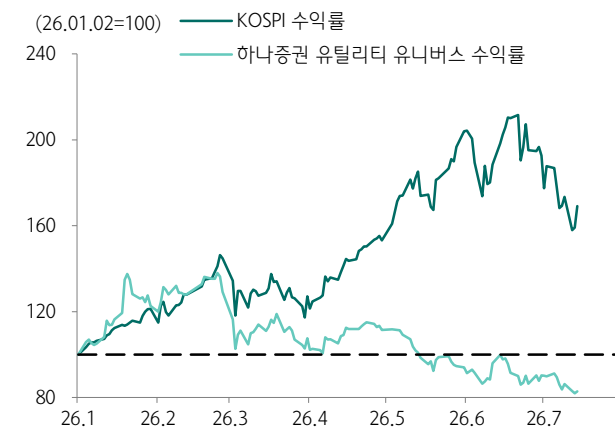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원가 부담 재차 확대. 다만 3월 이후 유가 등락에도 우려만 지속적으로 반영 중. 추가 악화 여부 관찰 필요
- SK이터닉스: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 전망. 국내 RE100 PPA 시장 주요 플레이어로 관심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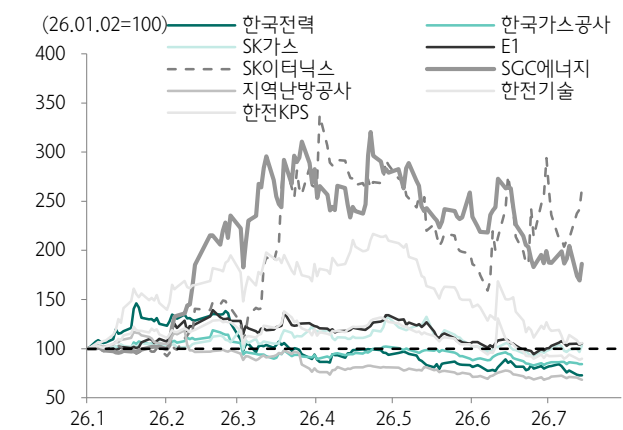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7/15)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Pt)	7,284.41	0.5	(12.3)	(14.0)	(17.8)	32,119	16,747	(47,636)
한국전력	33,900	(7.8)	(9.8)	(7.8)	(16.3)	(113)	(46)	154
한국가스공사	32,400	(2.4)	(0.5)	(0.2)	(10.1)	31	20	(49)
SK가스	226,500	5.6	6.1	9.4	2.3	12	(6)	(6)
E1	85,300	(0.1)	5.4	7.3	(0.1)	2	6	(7)
SK이터닉스	53,300	29.4	(10.3)	41.2	1.7	152	8	(194)
SGC에너지	39,900	(0.1)	(6.4)	(8.4)	(29.1)	25	(20)	(4)
지역난방공사	64,700	(4.0)	(1.1)	(3.4)	(10.5)	4	(4)	(1)
한전기술	95,000	0.1	(16.6)	(13.1)	(29.8)	43	6	(49)
한전KPS	43,850	(0.1)	(4.6)	(2.9)	(15.8)	49	(14)	(35)

섹터 / 종목별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주요 뉴스

1. 태양광 장기계약 빚장 풀리나...RE100 기업 재생에너지 가뭄 숨통 - <https://bully.kr/7x8q2EG>

- RPS 고정부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
- 20년 장기 고정부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계약 종료 뒤 일반 기업과 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
- RPS가 폐지되면 약 7000MW 규모로 파악되는 현물시장 물량과 함께 고정부가격계약 물량도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

2. 바닥난 석유 재고에 호르무즈 재봉쇄까지...에너지 시장 초비상 - <https://bully.kr/6tel9L2>

- 현재 세계 석유 재고량은 상당히 소진된 상태여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될 시 폭등 우려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분기 동안 글로벌 석유 재고량이 하루 평균 630만배럴씩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도 민간과 석유공사의 총 비축량 1억9000만배럴 중에 민간 재고분인 9000만배럴 대부분 소진

3. 발전 노·정협의체,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 <https://bully.kr/CrUsLB>

- 합의안에 따르면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공정한 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 한전KPS 노사와 하청노동자, 전문가 참여 노사정 협의체 구성
- 발전정비산업 경쟁체계 개선에도 합의. 한전KPS의 공적 역할 강화 및 민간 정비기업과의 협력 추진

4. 배전망 ESS 사업자 9곳 확정...호남·제주 태양광 송통 트인다 - <https://bully.kr/6BzGE5F>

- 전국 32개 배전선로에 총 출력 128메가와트(MW), 용량 6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ESS를 구축
- 배전선로 1곳당 4MW(20MWh) 규모 ESS를 설치해 약 5.7MW의 태양광 발전을 추가로 수용하는 구조
- 2030년까지 ESS 약 700MW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1000MW를 추가로 계통에 연계한다는 계획

5. “하천수 너무 뜨겁다”...프랑스, 기록적 폭염에 원전 가동 줄여 - <https://bully.kr/GP5D7PC>

- 현재 프랑스 내에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원전은 3기 3.65GW로 이는 프랑스 전체 원전 설비 용량(61GW)의 6%
- 원전 계속 가동 시 냉각에 사용한 물이 하천으로 되돌아가면서 수온을 더 높여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기준 초과 우려
- 원자로 3기 외에도 약 7~8기의 원자로가 추가적으로 출력을 낮춰 운전하며 상황에 따라 가동 수준을 조정하는 중

6. “현 추세로는 2035 NDC 달성 어렵다”... 전력·산업·수송 '추가 감축' 경고 - <https://bully.kr/ETOrTTg>

- 단기 감축목표 달성보다 '연속적인 감축경로'를 확보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 2024년 기준 국가 순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전력과 산업, 수송 부문이 2035 NDC 달성의 핵심이라고 분석
- 전력 부문은 이미 2018년 대비 22.9%를 감축해 가장 큰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가장 많은 추가 감축이 요구되는 분야

7.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시대가 왔다 - <https://bully.kr/GP5D7Pe>

- 버지니아주 세계 최초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에 직접 세금 부과. 노스캐롤라이나는 20년간 유지해온 전력 보조금 폐지
- 서울은 kWh당 0.011달러. 유틸리티 공급 전력뿐 아니라 자체 발전 전력에도 부과되며 현장 태양광·풍력도 예외 없음
- 1GW 캠퍼스는 약 1억 달러(약 1,380억원). 세수 상한은 연간 6억 달러이며 2028년 6월 30일 일몰

8. 정부, 신규 원전·SMR 공론화...12차 전기본 반영 방침 - <https://bully.kr/FsKwAyM>

-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기수요만 약 30GW로 잠재수요까지 합하면 40GW 상회
- 추가로 난방 전기화 등 각종 전기화 수요까지 합하면 2040년까지 약 50GW 이상으로 급증
-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확대. 신규 원전과 SMR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영

9. EU, 상반기 러 Yamal LNG 역대 최대 수입...전년比 18% 증가 - <https://bully.kr/4xZxMOM>

- EU는 올해 상반기 Yamal LNG 프로젝트에서 989만톤의 LNG를 수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규모
- 반면 상반기 아시아 수출 물량은 51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
- 단기 계약을 통한 러시아산 LNG 수입은 금지. 2027년 1월부터는 장기 계약에 따른 러시아산 LNG 수입도 중단할 예정

10. 다시 오르는 산업용 가스요금... 산업계 원가부담 확대 - <https://bully.kr/7mE53SG>

- 산업용 가스요금이 지난해 11월 저점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선박 운임과 전쟁보험료 상승, LNG 운송 지연 우려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현물가격(KM)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
-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용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매크로 지표 / 판매실적

매크로 지표 /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7월 13일	1W	1M	3M	1Y	YTD	1W(%)	1M(%)	3M(%)	1Y(%)	YTD(%)
원/달러 환율	원	1,498.0	1,529.0	1,518.0	1,479.2	1,379.2	1,438.4	(2.0)	(1.3)	1.3	8.6	4.1
달러 인덱스	Pt	101.3	100.8	99.8	98.4	97.9	98.2	0.4	1.5	2.9	3.5	3.1
WTI	달러/배럴	79.2	69.6	88.6	100.7	69.6	57.8	13.8	(10.6)	(21.4)	13.7	37.0
Brent	달러/배럴	83.3	72.0	87.4	99.5	70.4	61.9	15.7	(4.6)	(16.2)	18.4	34.6
Dubai	달러/배럴	77.5	65.5	83.9	102.7	71.2	61.4	18.3	(7.6)	(24.5)	8.8	26.1
Bunker	달러/톤	475.0	420.2	578.7	685.5	404.9	341.3	13.0	(17.9)	(30.7)	17.3	39.2
천연가스(HH)	달러/MMBtu	2.9	3.3	3.1	2.6	3.4	4.0	(10.8)	(7.6)	10.3	(13.7)	(27.1)
아시아 LNG	달러/MMBtu	16.5	16.1	18.9	19.4	13.1	9.6	2.9	(12.3)	(15.0)	26.1	72.7
유연탄(호주)	달러/톤	128.7	128.4	148.9	135.5	112.0	106.7	0.2	(13.6)	(5.0)	14.9	20.7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판매실적 추이

한국전력

		2026년 5월	2025년 5월	YoY(%)	2026년 4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GWh)	주택용	6,061	6,051	0.2	6,479	(6.4)	33,965	33,644	1.0
	일반용	9,801	9,498	3.2	10,182	(3.7)	57,065	56,006	1.9
	산업용	22,387	22,926	(2.3)	22,803	(1.8)	113,486	116,096	(2.2)
	기타	2,682	2,744	(2.2)	3,265	(17.8)	18,886	19,607	(3.7)
	합계	40,931	41,219	(0.7)	42,728	(4.2)	223,402	225,354	(0.9)
판매금액 (억원)	주택용	9,143	9,886	(7.5)	9,095	0.5	53,277	52,396	1.7
	일반용	15,777	16,032	(1.6)	15,378	2.6	96,189	94,438	1.9
	산업용	37,099	39,113	(5.2)	38,648	(4.0)	200,958	205,711	(2.3)
	기타	2,930	3,659	(19.9)	2,998	(2.3)	20,826	21,297	(2.2)
	합계	64,948	68,690	(5.4)	66,119	(1.8)	371,250	373,843	(0.7)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50.8	163.4	(7.7)	140.4	7.4	156.9	155.7	0.7
	일반용	161.0	168.8	(4.6)	151.0	6.6	168.6	168.6	(0.0)
	산업용	165.7	170.6	(2.9)	169.5	(2.2)	177.1	177.2	(0.1)
	기타	109.2	133.4	(18.1)	91.8	18.9	110.3	108.6	1.5
	평균	158.7	166.6	(4.8)	154.7	2.5	166.2	165.9	0.2

한국가스공사

		2026년 5월	2025년 5월	YoY(%)	2026년 4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천톤)	도시가스	1,177	1,130	4.2	1,349	(12.8)	9,824	9,961	(1.4)
	발전	1,198	1,263	(5.1)	1,321	(9.3)	7,447	6,933	7.4
	합계	2,375	2,393	(0.8)	2,670	(11.0)	17,271	16,894	2.2

지역난방공사

		2026년 5월	2025년 5월	YoY(%)	2026년 4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천Gcal, GWh)	열	579	646	(10.4)	816	(29.0)	8,396	8,706	(3.6)
	냉수	28	23	21.7	17	64.7	81	73	11.0
	전기	884	620	42.6	1,172	(24.6)	6,663	6,897	(3.4)

자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증권

일별 SMP 및 수요예측 추이 (육지 기준)

		7월 8일(수)	7월 9일(목)	7월 10일(금)	7월 11일(토)	7월 12일(일)	7월 13일(월)	7월 14일(화)
SMP(원/kWh)	최대	155.26	157.11	157.68	157.73	157.31	156.89	160.37
	최소	92.62	102.97	92.21	94.70	90.30	90.89	103.40
	가중평균	134.30	138.02	137.16	131.80	130.72	138.68	140.20
수요예측(MW)	최대	77,462	78,509	79,365	72,587	73,310	84,270	86,533
	최소	56,277	56,159	55,363	55,239	51,729	52,417	59,543
	가중평균	67,735	69,271	70,047	61,504	59,917	70,295	74,850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일별 전력수급실적 추이

	설비용량 (GW)	공급능력 (GW)	최대전력(GW)				최소전력(GW)		공급예비력 (GW)	공급예비율 (%)
			금년	전년	증가율(%)	시간대	금년	시간대		
7월 8일(수)	159.4	102.6	85.3	92.7	(7.9)	15시	60.5	05시	17.2	20.2
7월 9일(목)	159.4	100.2	84.7	90.7	(6.6)	11시	60.3	05시	15.5	18.3
7월 10일(금)	159.4	101.2	83.6	87.2	(4.1)	19시	59.3	05시	17.6	21.0
7월 11일(토)	159.4	98.0	78.6	77.1	1.8	20시	58.6	06시	19.4	24.8
7월 12일(일)	159.4	98.0	80.7	72.0	12.1	20시	56.3	06시	17.4	21.5
7월 13일(월)	159.4	103.5	92.9	80.1	16.0	19시	57.7	04시	10.6	11.4
7월 14일(화)	159.4	104.8	92.6	78.8	17.4	17시	63.4	05시	12.2	13.2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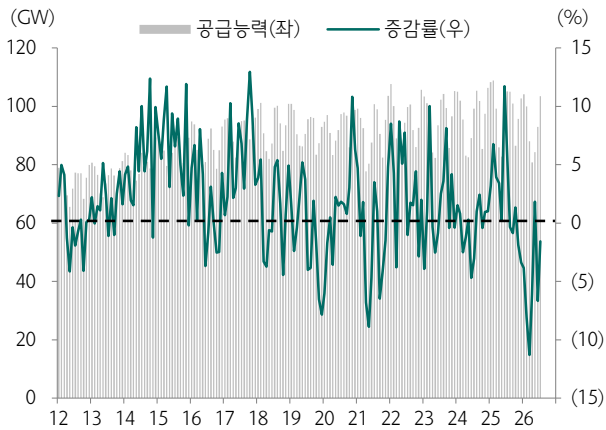
주간 기저발전 예방정비 계획 (7월 3주차)

석탄	당진	#4 : 4.29 - 7.14 / #5 : 3.30 - 8.5
	보령	
	신보령	
	삼천포	
	여수	#2 : 7.9 - 7.14
	영흥	#2 : 1.1 - 9.21 / #3 : 7.9 - 7.13 / #4 : 7.4 - 7.19
	태안	#9 : 7.10 - 7.13
	신서천	
	하동	
	삼척그린	#1 : 4.1 - 7.13
	북평	
	고성	
	강릉안인	
	삼척화력	
국내탄	동해	
원자력	고리	#3 : '24.9.28 - '26.12.31 / #4 : '25.8.6 - '26.12.31
	신고리	
	한빛	#1 : '25.12.9 - '27.3.31
	한울	#4 : 5.18 - 7.31
	신한울	
	월성	#2 : '25.9.1 - '26.8.12 / #3 : '25.9.26 - '26.7.24 / #4 : '25.7.18 - '26.9.11
	신월성	
	새울	#1 : 7.2 - 8.31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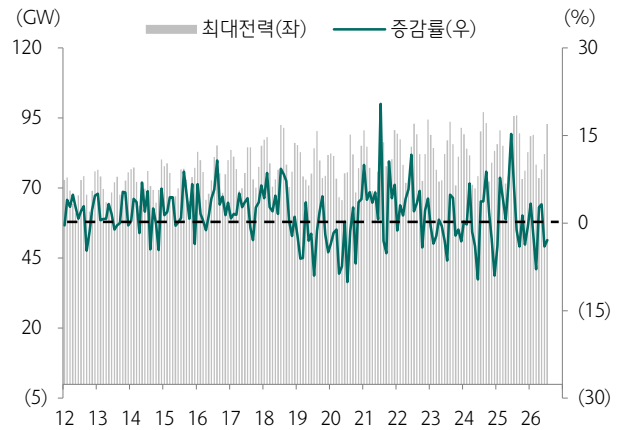
주요 차트

도표 1. 월별 공급능력 (7월 13일 최대수요 기준 YoY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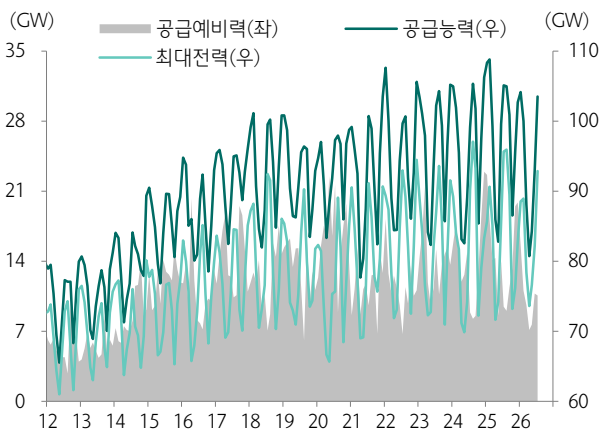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2. 월별 최대전력 (7월 13일 최대수요 기준 YoY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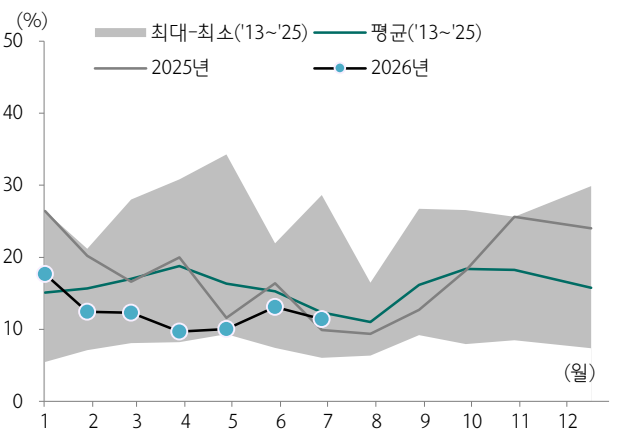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공급예비력 (7월 13일 최대수요 기준 YoY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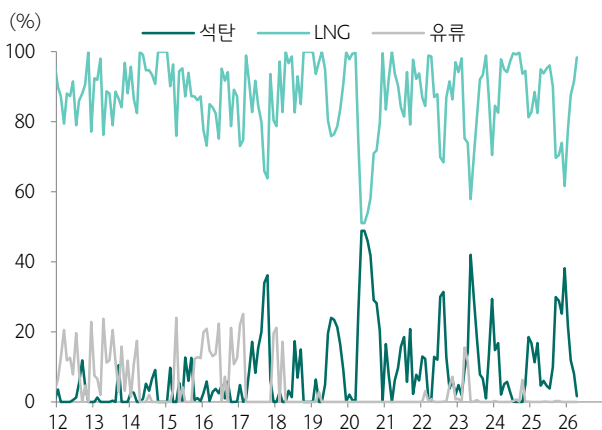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4. 월별 공급예비율 (7월 13일 최대수요 기준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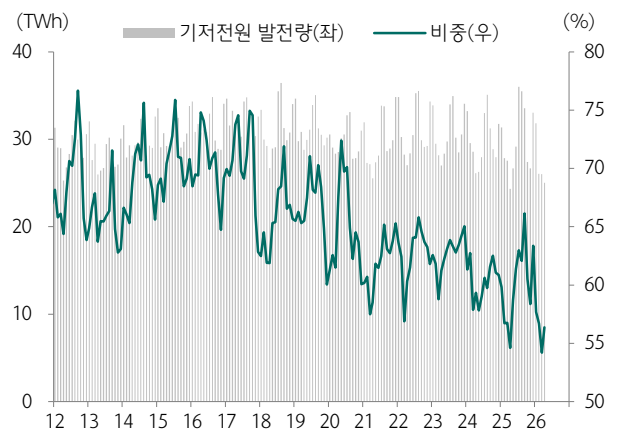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5. 연료원별 SMP 결정비중 (4월 기저전원비중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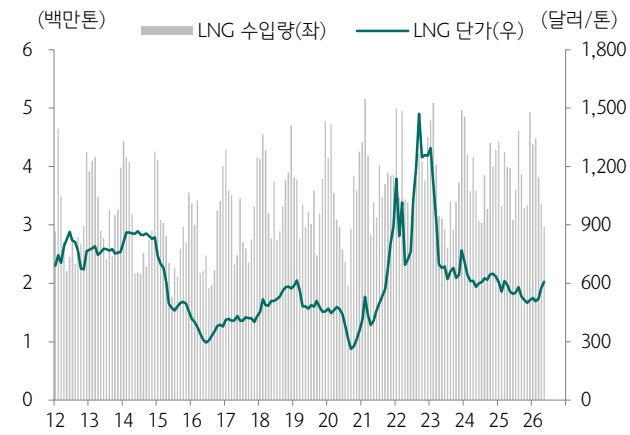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6. 기저발전량 비중 (5월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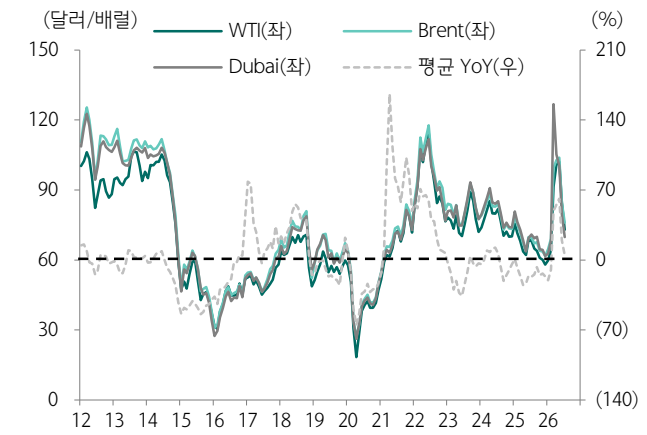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증권

도표 7. 국내 LNG 수입량/단가 (5월 YoY -25.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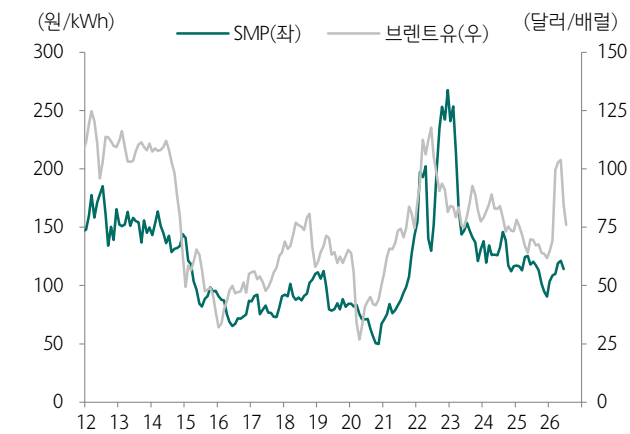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8. 국제유가 (7월 3대 유종 평균 YoY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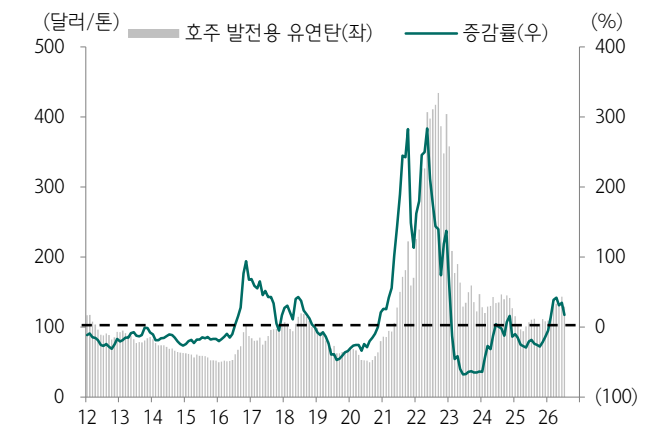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9. SMP와 국제유가 추이 (6월 SMP YoY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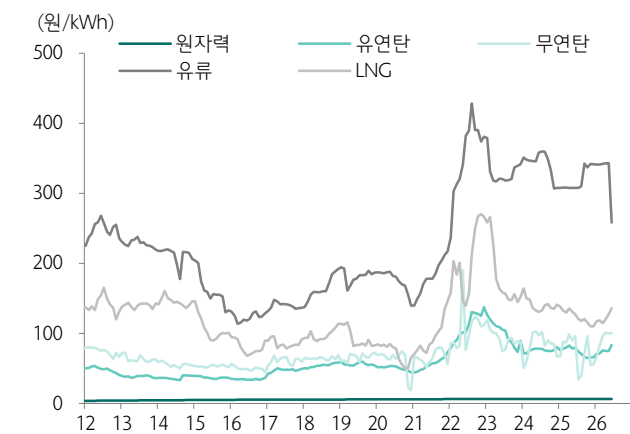
자료: EPSIS,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10. 호주 발전용 유연탄 (7월 YoY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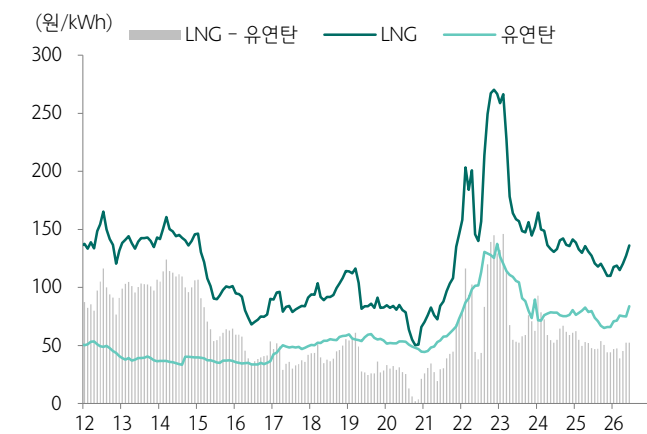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도표 11. 연료비단가 (6월 LNG YoY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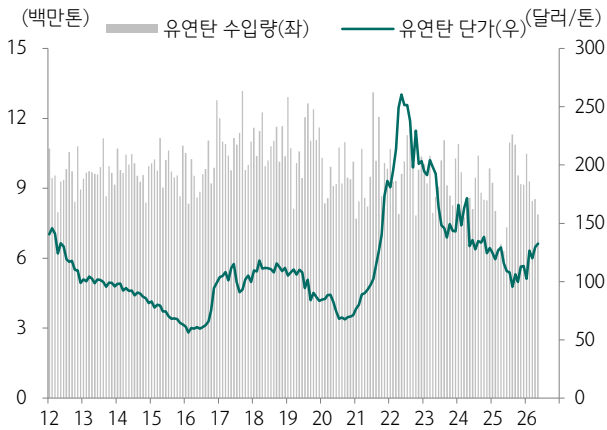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2. LNG/유연탄 연료비단가 격차 추이 (6월 52.37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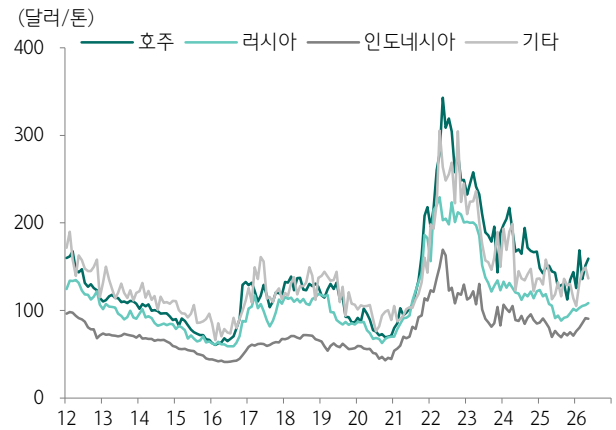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3. 국내 유연탄 수입량/단가 (5월 YoY +24.8%/+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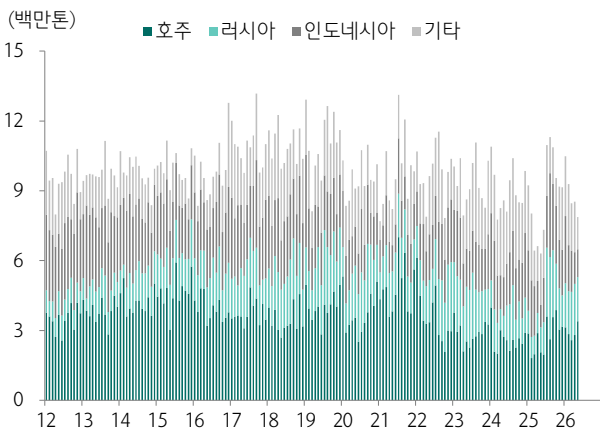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4. 지역별 유연탄 수입단가 (5월 호주 YoY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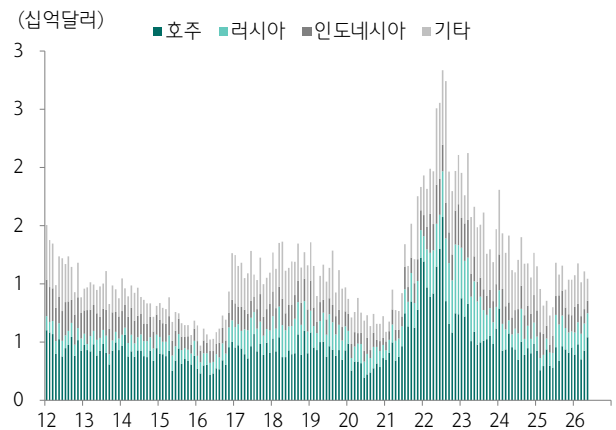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5. 지역별 유연탄 수입물량 (5월 호주 YoY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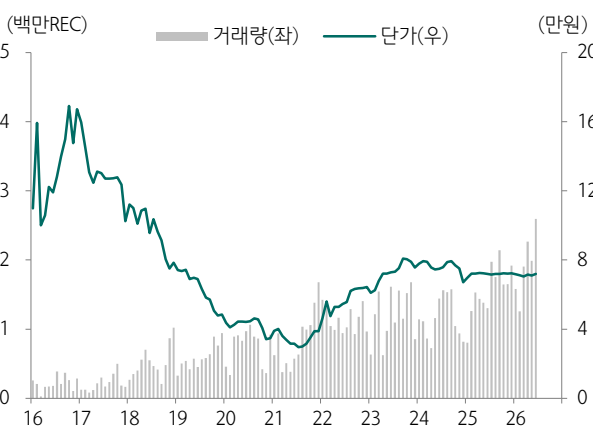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6. 지역별 유연탄 수입금액 (5월 호주 YoY +81.3%)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7. 현물시장 REC 거래량/단가 (6월 YoY +99.1%/+0.1%)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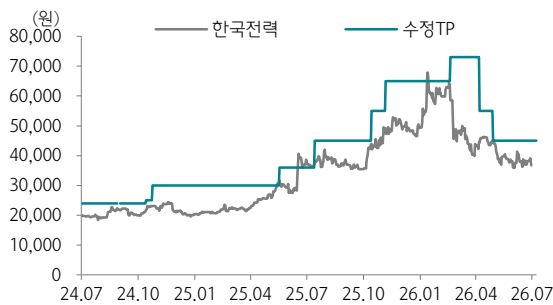
도표 18.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추이 (KAU25)



자료: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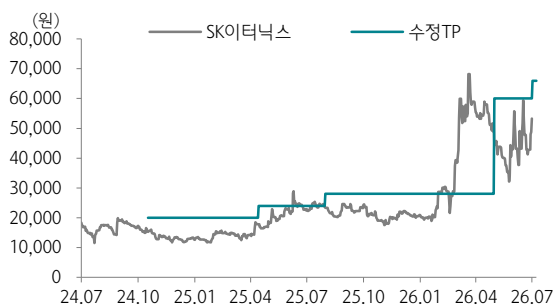
한국전력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5.7	Neutral	45,000		
26.4.15	BUY	55,000	-17.38%	-15.73%
26.2.27	BUY	73,000	-37.81%	-30.27%
25.11.14	BUY	65,000	-16.11%	4.46%
25.10.22	BUY	55,000	-18.18%	-9.91%
25.7.22	BUY	45,000	-15.71%	-2.56%
25.5.26	BUY	36,000	-7.36%	12.78%
24.11.1	BUY	30,000	-24.37%	2.33%
24.10.22	BUY	25,000	-8.74%	-7.60%
24.9.10	BUY	24,000	-13.68%	-7.29%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SK이터닉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16	BUY	66,000		
26.5.15	BUY	60,000	-26.57%	-1.00%
25.8.14	BUY	28,000	5.81%	143.57%
25.4.28	BUY	24,000	-7.56%	20.42%
24.9.11	BUY	20,000	-27.71%	-0.4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7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6년 7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4%	2.76%	0.00%	100%

* 기준일: 2026년 07월 13일